

복구, '동절기 주민생활 안정' 총력 대응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17개 과제 "안전한 겨울 보내도록 최선"

광주 복구가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맞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1일 복구에 따르면 동절기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이웃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주민 생활 안정 종합대

책'이 추진된다.

이번 주민 생활 안정 종합대책에서는 △재난·재해 대비 △감염병 예방 △저소득층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17개 과제가 실행된다.

먼저 복구는 폭설·한파 시 제설 대책과 한파 저감 시설을 운영해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해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응급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등 비상 진료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겨울철 유행 호흡기 질환을 밀착 관리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5만포기 규모의 김장 나눔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돌봄 이웃에게 안부 확인 강화를 비롯해 보일러 점검·수리, 난방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꾀한다.

이밖에도 노인·장애인·노숙인 복지시

설 겨울철 안전 점검, 거동 불편 노인 및 결식 우려 아동 도시락 배달·급식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보호 강화 대책도 시행된다.

문인 복구청장은 "동절기 주민 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겨울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눔 온도를 높여 취약계층이 더욱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자원회수시설 국제심포지엄 개최 광산구, 6일 오후2시 호남대학교



광주 광산구는 오는 6일 오후 2시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해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포스터)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공동주최하는 심포지엄은 광주가 직면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상태다.

심포지엄은 국내외 우수사례와 정책 등 광역자원회수시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관련 권위자인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가 '폐기물 처리 이슈와 자원순환 시설 설치와 운영 동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송장수 호남대학교 AI(인공지능) 교양대학장, 예스퍼 크누센(Jesper Knudsen) 주한 덴마크 대사관 에너지 참사관, 세계적 명소가 된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 총괄책임자인 닐스 토르 로스테드(Nils Thor Rosted), 나마이 슈이치(生井秀一) 요코하마 자원순환국 적정처리부장, 줄리안 퀴타르트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 이규옥 경기하남유니온시티 에일린의뜰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방송인으로도 알려진 줄리안 퀴타르트 씨는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기후행동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진행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가 직면한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모든 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가 폐기물 처리만이 아닌 에너지 재생산,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기반 시설을 지역사회가 다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시민에게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기 위해 권역별·21개 동별 설명회, 사회적 대화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김상철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모 선정 남구, 국비 28억원 확보

광주 남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아 사업 예산으로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171곳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했고, 상위 10%에 속한 남구 등 지방자치단체 17곳을 A등급으로 평가했다. 광주 자치구 중에서는 남구가 유일하다.

평가에 반영한 세부 지표는 올해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시공 능력과 수행 능력, 지방비 자부담 비율을 비롯해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업의 적정성과 중장기 계획, 사후관리 능력 등이다.

남구가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게 된 배경은 오는 2030년까지 관내 단독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50%를 목표로 곳곳에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해당 공모에 참여해 올해까지 6번에 걸쳐 국비 159억원을 확보했고, 매년 지방비 매칭을 통해 관내 17개동 주택과 상가 건물 등 1990곳에 태양열과 태양열 설비를 공급했다.

특히 '1가구 1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에너지 자립률이 80% 수준에 이른 신효천마을의 경우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실증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해 마을 수익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남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5년 한해간 관내 주택과 공공주택, 상가 건물 328곳 및 시설 6곳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과 녹색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구는 오는 6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 서구 제9

서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공사장 점검 나서

이달 6일까지 건설공사장 9개소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집중 관리

광주 서구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이달 6일까지 지하 2층 이상, 대지 3000㎡ 이상 및 굴착깊이 10m 이상 등의 관내 건설공사장 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자 문단, 관계기관 등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적정성 △한중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등 동절기 공사계획 수립 여부 △폭설·강설 대비 시설물 붕괴·전도방지 및 결빙구간 미끄럼방지 대책 등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 접근통제 등 신속한 안전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주체에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보수·보강,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 관리토록 조치하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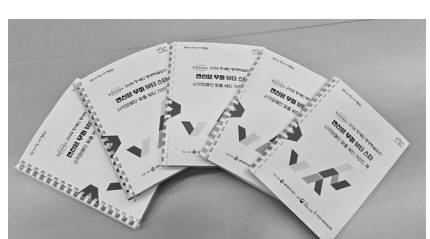
김이강 서구청장은 "동절기를 맞아 서구 민생현장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예방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겨울철 공사현장 사전 위험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동구, 시각 장애인 맞춤 뷰티 점자 가이드북 발간

위생·외모 관리 실용 정보 담아

광주 동구 평생학습관은 시각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향상을 돕기 위해 지난해 '점자 요리 레시피북'에 이어 올해는 '시각장애인 맞춤 뷰티 점자 가이드북'을 새롭게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뷰티 점자 가이드북은 시각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개인위생과 외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점자와 일반글자 2가지로 구성됐으며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팁과 화장품 사용법, 피부 관리, 헤어 스타일링 및 향수 등 다양한 실용 정보를 담았다.



광주 동구 평생학습관이 1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장애인 맞춤 뷰티 점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광주 동구 제9

특히 최근 진행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변신은 무죄 뷰티 스타' 학습자들과 전문 강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뷰티 점자 가이드북은 동구 평생학습관에 비치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뷰티 점자 가이드북이 시각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자립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스스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 요리 레시피북'을 발간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현기 기자

